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오 선 영 · 최 정 미*

인천국공립 고잔어린이집 ·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A Study on the Working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Oh, Sun Young · Choi, Jung Mi*

GoJan Child Day Care Center, Incheon, Korea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working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is investigation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whether there was a perceived affective nurturing attitude and monitoring of the mother. To study such differences, 437 second and third grade children with both parents working were chosen as the subjects of this investigation. The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percentage, averages,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t-test, one 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 of anxiety with respect to children's genders, maternal educational levels and maternal occupations. In the area of loneliness, the differences came only from the differences in the grade level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nelines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subjects' perception of an affective nurturing attitude and monitoring of mothers. In other words, it revealed that the group of children that strongly perceived an affective nurturing attitude and monitoring by their parents showed a lower level of loneliness and a higher level of self-perceived competence.

Key words: parental attitude, psychological well being, anxiety, loneliness, self-perceived competence

I. 서 론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성인의 적절한 돌봄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통계청 2003) 최근 잇따른 여성취업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증가와 연결된다. 이들 취업모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자녀양육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경혜 1998; 임선심 1998). 특히, 비취업모 자녀들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들의 경우,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하는 경험이 이후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Posner · Vandell 1994)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취업모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시기는 아직도 부모 혹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로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보호형태 못지않게 취업모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Bronfenbrenner 등 1984; Hoffman 1989). 양육태도 중 자녀발달에 중요하다고 가장 자주 보고되는 것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들 수 있으며(박선자 1994; 안현숙 2000; 이영순 · 김미라 2000; 임선심 1998), 이외에도 취업모 자녀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제시되는 양육태도로는 성장하는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감독(*monitoring*)행동을 들 수 있다(천희영 등 2001; Crouter et al. 1990; Pettit et al. 1999; Stattin · Kerr 2000).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고', '무엇을 하는지'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지지해 주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의 일상

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해주는가에 대한 감독정도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이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러나 부모감독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후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련변인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행동, 비행행동, 또래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을 뿐 아동의 정서발달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기대하면서도 취업모로 인해 시간 제약과 같은 이유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취업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측면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편,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유능감, 불안 등과 같은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복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란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부정적인 측면만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법,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적 복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선호되는 추세이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로 자아유능감, 지지감, 향상감 등이 포함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이 포함된다(장영은 1998; 최진원 2001; Cowen 1994). 특히 자아유능감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발달특성상 불안,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심리적 복지 중 긍정적 측면으로 자아유

능감과 부정적 측면으로 불안, 외로움을 선정하여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김경연 1987; 이영순 등 2000; Becker 1964; Vandell · Rodmanan 1991)임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 이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아동의 성별(김명숙 · 정영숙 1997; 김현경 1996; 도현심 1996, 1999; 서미정 1999; 옥경희 등 2001; 이남기 · 박정희 1995;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Galambos · Garbarino 1985; Hater 1982; Reynolds · Richmond 1978; Stokes · Levin 1986; Zill 1983), 학년(김명숙 · 정영숙 1997; 박선영 · 도현심 1998; 서미정 1999; 장영은 1998; 정순지 1989; 최혜영 1989; Harter 1982; Luftig 1987),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강병기 1990; 이남기 등 1995; 최경순 등 1996; Halpern 1992; Long · Long, 1982; Vandell · Ramanan 1991)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별, 학년, 어머니의 학력 및 직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유용한 아동의 심리적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별, 학년, 어머니의 학력 및 직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부모의 직업 및 학력 등에 관해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장영은(1998)은 보호형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서 불안수준에 있어서만 성차가 나타났을 뿐 외로움 및 자아유능감은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전체 여아의 불안수준이 남아 전체의 불안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옥경희 등(2001)의 연구 역시 여아의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수준이 남아의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명숙과 정영숙(1997)의 연구에서 성별은 아동의 불안과 적응에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불안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불안해 하거나 불안정도가 더 높다고 한 여러 선행연구들(이희진 1989; Galambos · Garbarino 1985; Reynolds · Richmond 1978; Zill 1983)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성별과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외로움이 또래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도현심 1996, 1999; 정영인 1988),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로움 수준에서 성차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몇몇 연구들은 외로움과 친구의 숫자, 또래경험과 같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성차를 발견하였다(도현심 1999; Stokes · Levin 1986). 즉 친구의 숫자와 같

은 변인들은 여아들보다 남아들의 외로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김현경(1996)은 우울 수준에 있어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회성 영역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유능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유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유능감 중요도 인식수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남기·박정화 1995), 일반적으로 유능감에 대한 성차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즉, 유능감은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유능감에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서미정 1999). Harter(1982) 역시 성별에 따른 자아유능감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자아 지각능력의 세부변인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겠다.

아동의 연령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살펴 보면, 아동의 연령은 불안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더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등 1997). 연령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적게 느끼며(Luftig 1987), 자신에 대한 지각능력이 높을수록 외로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도현심 1998; 장영은 1998).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유능감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정순지 1989; 최혜영 1989; Harter 1982),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유능감을 더욱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은 전형적으로 자신을 능력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며 때로는 과장될 정도로 과대평가를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은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을 통해 사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나(Harter 1982) 연령에 따른 유능감의 발달은 영역별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서미정 1999).

부모의 학력,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계층에 따른 요인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정서적 부적응성이 높았고(최경순 등 1996), 저소득층의 아동일수록 높은 수준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나타내어 이로 인한 정서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최경순 등 1996;

Halpern 1992; Long·Long 1982). 장병기(1990)는 취업모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보다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종류와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계층에 따라 아동의 유능성, 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유능성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순 등 1996; Vandell·Ramanan 1991). 이남기 등(1995)에 의하면 가정의 계층지수,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정도와 같은 변인은 아동의 가정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아동이 지각하는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불안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었고 특히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는 전체적인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부분적으로 자아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라 불안, 외로움, 자아유능감 역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아동기는 전반적으로 부모 혹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선행연구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아동의 개인적 특성 못지 않게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자녀관계가 학령기 초기까지의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박성연 등 1990; 임선심 1998; 최경순 등 1996; 최정미 1999; 한명희 1991; Pettit et al. 1999). 그러므로 유아기 및 아동기의 발달에 있어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하며, 가정 환경변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지대하다. 즉, 아동의 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

해 나간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적인가, 어떻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haefer(1959)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칭찬과 애정표현, 아동의 욕구와 견해에 대한 민감성, 자녀와 자주 놀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적게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Becker(1964)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자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수용과 인정의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오성심·이종승(1982)은 애정적 양육태도의 특징으로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녀에게 칭찬과 상담,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고 하였다. 한종혜(1980)는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를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하는 태도라고 보고 자녀 교육을 부모의 중요한 일로 여겨 헌신적이고, 자녀의 계획과 포부, 학교에서의 발전 등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함께 게임, 운동, 취미활동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용기도 주며, 자녀의 좋은 행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태도라고 하였다. 이지연(2001)은 애정적 양육태도란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하는 태도를 말하며 자녀의 흥미와 필요,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느끼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며 사랑과 칭찬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Becker 1964), 긍정적·지지적 양육태도(Dekovic·Janssens 1992) 아동의 또래관계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거부적 태도,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 과잉보호(권자영 1991; 김명숙·정영숙 1997; 유안진·서봉연 1982)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 부모가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때 사회적 역량이 증가되었다(최경순 등 1996).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에서(이영

순 등 2000)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불안은 낮아지며 모든 차원의 양육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애정이 바탕이 되며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로서 대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애정을 받으면 자녀의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많이 당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양육된 자녀는 혼란, 불안감, 외로움 같은 정서적 고통과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이영순·김미라 2000; Symonds 1949). Becker(1964)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신경숙(199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애정을 갖거나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불안이나 우울, 적대감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된 바에 의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수용, 관심, 애정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자기지각에 관련이 되며(김기정 1984; Growe 1980), 특히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수용성 및 애정적 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경연 1987; 손화희·윤종희 199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 유능감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공인숙 1989; Paul 1992).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지각의 발달을 향상시키고(Paul 1992),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자아유능감이 높았다(공인숙 1989). 이상과 같이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가 아동의 능력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아동의 자아유능감 지각

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육태도 중 부모의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 및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Peterson · Rollins, 1987).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통제유형의 하나인 감독(monitoring)이 양육의 한 일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감독(monitoring)'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동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라 할 수 있으며(김선에 1994), '통제의 수단으로 계속 지켜보거나 점검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Kerr · Stattin 2000).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을 통한 통제나 보호보다는 부모의 영향권 밖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 가정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하며(Bronfenbrenner · Crouter 1982), 부모의 유도(parental solicitation), 자녀의 노출(child disclosure), 그리고 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부모 감독은 부모-자녀의 일반적인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김선에 1994).

이러한 부모 감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현미와 옥선화(2001)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로 부모의 감독을 보았고, 김선에(1995)는 부모의 감독은 부모-자녀의 일반적인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부모의 간접적 통제유형과 관련하여 부모의 감독을 언급하였다.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 행동과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희진(1998)은 어머니의 지도/감독을 유아가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가 유아를 관찰하거나 놀이행동을 돕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김유진(1995)은 부모의 감독을 자녀가 무슨 일로 어디에 있으며,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등 자녀

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 감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은 부모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찰하는 노력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천희영 등(2000, 2001)은 Stattin과 Kerr(2000)의 이론을 근거로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무슨 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등의 자녀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 부모의 감독을 보았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직접적인 통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은 간접적인 통제자로서의 감독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가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자녀의 일상경험을 '감독'하는 방법이 있다. 편모가정의 자녀들 중 방과후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경우가 기관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들보다 더 부정적이었던 결과들은(Vandell · Romanan 1991) 부모 없이 지내는 기간보다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이후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과 얼마나 함께 있는가의 여부보다는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옥경희 등 2001).

어머니의 감독여부와 아동의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지지, 통제, 감독이 아동발달의 여러 영역에 상관이 있으며 특히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와 감독은 사회·정서적인 면의 적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옥경희 등 2001). 김희진(1998)은 지도/감독 행동을 빈번히 하거나 높은 수준의 지도/감독 행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유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부모의 애정에 대해 내린 평가와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였다(김유진 1995). 어머

니의 감독은 자녀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서 부모-자녀간의 애정적인 유대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이런 애정적인 유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자녀는 우울이나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도현심 1999; 박진경·도현심 2001).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집에서 보다 집밖에 있는 생활이 많아지면서 아동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이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감독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후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련변인으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학업성취 행동, 비행행동, 또래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을 뿐 아동의 정서발달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5개구에서 주로 맞벌이 부부가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의 초등학교를 각각 1개씩 임의 표집하여 5개 초등학교 2, 3학년 중 각각 두 학급을 선정하여 취업모 자녀 437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작성한 질문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분석

1) 아동의 심리적 복지척도

불안 척도는 Reynolds와 Richmond(1978)의 아동용 불안표출 개정판검사(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s ; RCMAS)를 기초로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83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는 Asher 등(1984)의 아동용 외로움 척도(Loneliness Questionnaire)와 장영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Asher 등(1984)의 외로움 척도 중 외로운 감정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장영은(1998)의 가족관계에 대한 외로움 문항들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9문항을 외로움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70으로 나타났다.

자아유능감 척도는 Hater(1982)의 아동용 유능감 지각검사(The Perceived Competences Scales for Children ; PCSC)를 기초로 연구대상에 맞게 선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인지: 4문항, 사회성: 3문항, 신체: 4문항, 자신에 대한 일반적 지각: 4문항)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총 15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437)

Characteristics	Division	N (%)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230(52.6)	Grade	2 grade	207(47.4)
	female	207(47.4)		3 grade	230(52.6)
Mother's education	under	39(8.9)	Mother's occupation	labour	130(29.7)
	middle school			hired technique	40(9.2)
	high school	262(60.0)		commerce, industry	150(34.3)
	over collage			office, technique	99(22.7)
136(31.1)		specialist, management		18(4.1)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박성연과 이숙(1990)과 최정미(1999)가 사용한 애정행동 문항들을 참고로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중 하나에 응답하는 3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척도는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Crouter et al.(1990)의 부모와의 전화면접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을 조사할 때 사용했던 질문들을 기초로 연구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감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총 5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중 하나에 응답하는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그렇다'에 2점, '보통이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어머니의 감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녀감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t검증과 ANOVA, 추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적 복지의 한 변인인 불안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성별, 모학력, 모직업이었다. 그러나 불안은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불안수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아의 전체 불안 수준(M=12.09)이 남아 전체의 불안수준(M=8.85)에 비해 유의하게

Table 2. Difference i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children's psychological well being

Variables	Division	N (%)	Anxiety			Loneliness			Self-perceived competence		
			M	SD	D	M	SD	D	M	SD	D
Grade	2grade	207 (47.4)	10.42	5.74		5.54	2.62		18.59	4.14	
	3grade	230 (52.6)	10.35	5.83		4.77	3.08		18.86	4.31	
	t-value			.12			2.79**			-.65	
Gender	male	230 (52.6)	8.85	5.25		5.29	2.90		18.56	4.25	
	female	207 (47.4)	12.09	5.88		4.97	2.88		18.92	4.21	
	t-value			-6.08***			1.17			-.89	
Mo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9 (8.9)	11.23	5.82	A	4.97	2.85		19.00	5.04	
	high school	262 (60.0)	10.83	5.88	AB	5.20	2.89		18.37	4.21	
	over collage	136 (31.1)	9.27	5.45	B	5.07	2.93		19.36	3.96	
	F value			3.79*			.16			2.58	
Mother's occupation	labour	130(29.7)	10.20	5.51	AB	5.01	3.04		18.62	4.21	
	hired technique	40(9.2)	12.35	5.17	A	6.35	2.94		18.15	4.10	
	commerce, industry	150(34.3)	10.98	5.94	AB	4.96	2.93		18.73	4.33	
	office, technique	99(22.7)	9.19	5.77	B	5.22	2.65		18.99	4.31	
	specialist, management	18(4.1)	9.23	6.48	B	4.35	1.99		19.41	3.57	
F value				2.87*			2.28			.4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 Duncan * p<.05, ** p<.01, *** 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들(김명숙 등 1997;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Galambos · Garbarino 1985; Reynolds · Richmond 1978; Zill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아들에게 보다는 딸에게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강조하는 일반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학력에 따른 불안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M=11.23$)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M=10.83$, $M=9.27$)에 비해 아동이 느끼는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또한 모의 직업적 지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불안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고용기술직($M=12.35$)과 자영상공업($M=10.98$) 그리고 단순노동직($M=10.20$) 집단의 경우 전문직 및 관리직($M=9.23$), 사무직 및 기술직($M=9.19$) 집단에 비해 아동이 느끼는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들(강병기 1990; 최경순 · 정현희 1996; Halpern 1992; Long · Long 1982)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동이 불안을 더 높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

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므로(조병은 등 199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덜 발생하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아동의 학년으로 나타났다($p<.01$). 2학년($M=5.54$)의 경우 3학년($M=4.77$) 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은 집단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므로 학년이 어린 아동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외 심리적 복지의 하위 변인인 불안과 자아유능감에서는 학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아유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하위변인 중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감독을 평균과 표

Table 3. Difference in the affective nurturing attitude and monitoring of mothe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well being

Variables	Group(N)	Anxiety			Loneliness			Self-perceived competence		
		M	SD	D	M	SD	D	M	SD	D
Mother's affective nurturing attitude	upper(127)	10.00	5.89		3.91	2.69	C	20.85	4.23	A
	medium(194)	10.20	5.57		5.14	2.74	B	18.61	3.81	B
	lower(116)	11.12	6.00		6.49	2.81	A	16.63	3.81	C
	F value		1.32			27.00***			35.11***	
Mother's monitoring	upper(128)	10.65	6.03		4.26	2.66	C	19.96	4.17	A
	medium(174)	10.49	5.73		5.27	2.88	B	18.74	4.11	B
	lower(135)	10.00	5.63		5.81	2.96	A	17.57	4.16	C
	F value		.47			10.17***			10.94***	

Group classification standard : upper> M+SD, M-SD ≤medium≤ M+SD, lower< M-SD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 Duncan ***p<.001

준편차에 의하여 상·중·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변인 중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어머니의 애정이 높은 집단에서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은 낮고, 반대로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는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라는 선행연구들(김경연 1987; 박영애·정옥분 1996; Grove 1980)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일 때 아동은 안정감을 가지고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동시에 애정적인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타인에게 애정적으로 대하게 되므로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최정미 1999; Baruch·Barnett, 1981; Dekovic·Janssens, 1992; Hart et al. 1992; Hoffman·Saltzstein 1967; Lieberman 1977; Pettit et al. 1988; Rutherford·Mussen 1968)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감독에 따라서도 역시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높은 경우 아동은 외로움을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감독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김정아 1990; 김종희 1993; 옥경희 등 2001)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무슨 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등의 자녀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찰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동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감독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유용한 아동의 심리적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불안에서만 성별, 모의 직업 및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로움에서는 아동의 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아유능감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안정도가 다르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들(김명숙 등 1997; 이희진 1989; 장영은 1998; Galambos·Garbarino 1985; Reynolds·Richmond 197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자아유능감과 외로움보다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 측면 중 불안에서 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 영역인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 수준은 낮고 자아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공인숙 1989; Harter 1985; Paul 1992).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애정적이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방과후에 다소 긴 시간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외로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과 통제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응훈련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자아유능감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동이 느끼는 불안에는 성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아들에게 보다는 딸에게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강조하는 일반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위험을 강조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언행은 삼가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가 취업으로 인해 부재한 경우라도 자녀와 어머니간의 애정적이고 따뜻한 질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되면 아동의 외로움을 낮추고 자아유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중요함을 홍보하는 한편 애정적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머니가 감독을 할수록 아동은 외로움을 낮게 지각하고 자아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 어머니의 감독은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면에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감독의 필요성

과 동시에 올바른 감독 방법의 교육을 취업모에게 제공해주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겠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따른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들이 현대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아동기 발달과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더불어 취업모를 대상으로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올바른 감독 방법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등을 통해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 원만한 유대를 맺으며 행복하고 건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여러 관련변인들과 아버지 관련 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병기(1990). 자보아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자보기간에 따른 지능, 성격, 학업성취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석사논문.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논문.
- 김경혜(1998). 중산층 맞벌이가족의 자녀보육실태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논문.
- 김명숙·정영숙(1997). 방과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보육학, 9, 183-196.
- 김유진(1995). '어머니의 모니터링'과 자녀의 학업능력, 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지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 김선애(1995). 부모의 통제유형과 자녀의 반사회적

- 행동과의 관계. 상명여대 박사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종희(1993). 아동의 내·외통제 신념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관계. 아동학회지 14(1), 11-20.
- 김현경(1996). 아동의 학업성취도, 사회성, 성에 따른 우울수준과 유능감. 연세대 석사논문.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 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남현미·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박선영·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선자(1994). 어머니와 직업·양육태도·유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중앙대 석사논문.
-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7(1), 189-212.
- 박진경·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서미정(1999).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석사논문.
-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계명대 석사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간의 관계.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옥경희·김미혜·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 91-113.
- 유안진·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사.
- 이남기·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이영순·김미라(2000).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 춘해대논문집, 145-165.
- 이지연(2001). 청소년 자녀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논문.
- 이희진(1989).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임선심(1998). 초·중 1,2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시행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도의 양육부담감의 차이. 서울대 석사논문.
- 정순지(1989).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 조병은(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천희영·옥경희·김미혜(2001). 저소득층 청소년 초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 지식 근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73-97.
- 최경순·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19(2), 107-117.
-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도형분석. 전남대 박사논문.
- 최진숙·조수철(1990). 소아 불안의 측정-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학회지 29(3), 691-701.
- 최진원(2001). 아동의 심리적 복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 최혜영(1989). 사회적 능률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통계청(2003). 경제활동연구연보.
-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Asher SB, Hymel S, Renshaw P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aruch GK, Barnett RC(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 Becker W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 Russel Sage Foundation, 174-175.
- Bronfenbrenner U, Alvarez W, Henderson C(1984). Working and watching employment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s childrens. Child Development 55, 1362-1378.
- Bronfenbrenner U, Crouter AC(1982).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 357-414, NY : Wiley.
- Cowen E(1994).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149-180.
- Crouter AC, Macdemid SM, McHale SM,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 earner families.

-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Dekovic M, Janssens JMA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Kerr M,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a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Galambos NL, Garbarino J(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Grove GA(1980). Parental behavior and self-esteem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47, 499-502.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of inner city children :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art CH, DeWolf DM, Wozniak P, Burts DC(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bserv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offman L(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Hoffman ML, Saltstein H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5-47.
- Lieberman AF(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Long TJ, Long L(1981). Latchkey children. Urbana, IL; ERIC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Luftig RL(1987). Children's loneliness, perceived ease in making friends and estimated social metacognition. *Child Study Journal* 17(1), 35-53.
- Paul SG(1992).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Peterson GW, Rollins BC(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B. Sussman & S.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471-507.
- Pettit GS, Bates JE, Dodge KA, Meece D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ettit GS, Dodge KA, Brown MM(1988). Ear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osner J, Vandell D(1994). Low-income children after school care :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eynold CR, Richmond BO(1978). What I think and feel : A ew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Abnormal Child Psychological* 6, 271-280.
- Rutherford E, Mussen PH(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 Schaefer ES(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tattin H,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4(4), 1072-1085.
- Stokes J, Levin L(1986).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ng loneliness from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69-1074.
- Symonds PM(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Columbia University.
- Vandell DL,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Choice on after-school care an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 Zill N(1983). *American children : Happy, health and insecure*. New York : Doubleday Anchor Press.